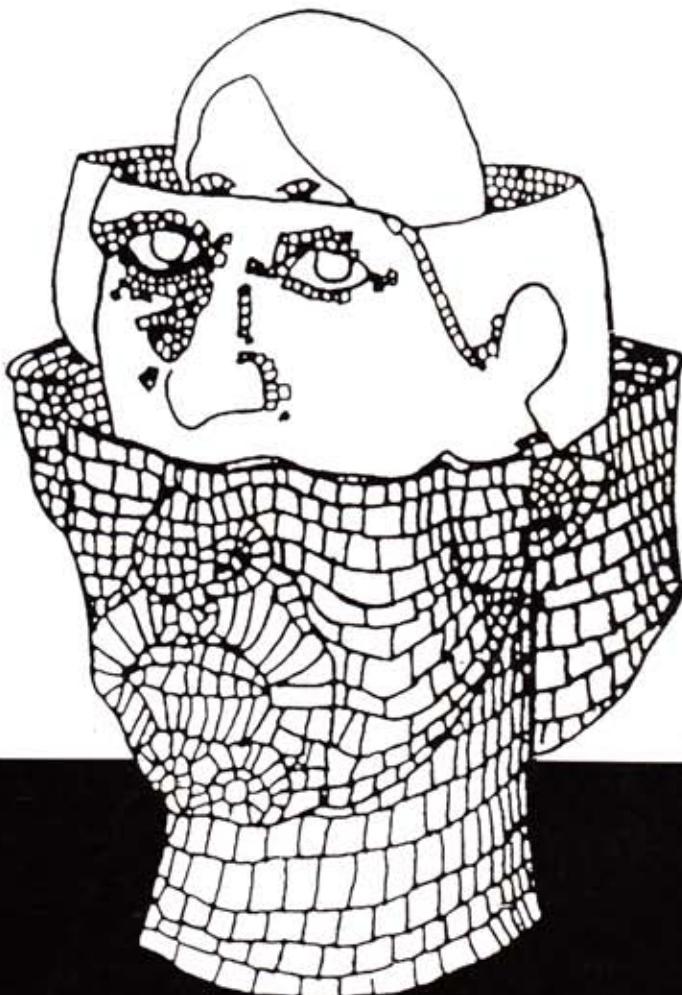


# 1993



| 원작 · Georg Kaiser  
기획 · 소장호  
연출 · 박원상

**메 드 사**

제17회 신입생 환영공연  
승 대 극 회  
대학극장

3·11▶12(18시) 3·13(14·17시)



극회장  
소장호

안녕하시렵니까?

요즈음 날씨가 매우 변덕스럽지요.

길거리에 장식되어있는 봄색깔을 무심하게 만들어버리는  
매서운 바람이 꽃샘추위를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커다란 극장에서 저희들의 모습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는 공학관 유리창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겨울 회오리에 휘감겨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영하 8 °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태운 자그마한 뗏목은 출항의 닻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 하나 하나가  
저희들의 긴 항해에 따스한 미풍을 불려주리라  
생각합니다.

추운겨울, 함께했던 많은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선배님·후배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승대극회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단 한번의 공연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 주겠다는  
오만함은 없습니다.

단지 무언가에 미쳐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중에서  
꿈을 먹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시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축 공연

승대극회 제 17회 신입생 환영공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배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승대극회 동문회 일동



소장호(전산 89)

이미 지나버린 날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을 맞이하여야 한다.  
지쳐버린 하루를 보상이라도 받기위해 손을 내밀어  
잡아보려 하나  
모든 것들이 어김없이 지나쳐 버린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ROCK &amp; JAZZ HOF



TEL. 816-1190

“공연을 축하합니다”

충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모카하우스**

따뜻함이 있는 공간입니다.

TEL. 812-4974


**The BOSS**  
 ☎ 823-0814

생각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순간  
당신을 생각하며  
존재하렵니다.

 남자아이 2  
홍석환(기계 91)

 여자아이 3  
김소희(독문 91)

하아품 ~ 육 ~ 푸 ~  
am 10시  
88-1  
뚜•뚜•뚜•뻥! 12시 정오  
안성탕면 V  
꽤크악! ○○는 바보  
pm 6시  
go home? or 지희네?


 앤  
이명성(기계 92)

잘하면 언젠가  
연극에 대해 알것도  
같다.

인간의 모든  
행위예술을  
찬양하며—건배!


 앤  
류은숙(산공 92)

 남자아이 3  
조태희(섬유 92)

 여자아이 2  
송숙희(영문 92)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새끼여우  
김진범(전산 92)

난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며 주저한다.  
그러나 이번엔  
확실히 선택하려고 노력했다.



박원상(독문 88)

1. 작품을 처음 대하고 가질 수 있었던 절실한 느낌을 공연을 막바지에 둔 지금, 나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다. 아래서는 안되는데…
2. 카이저는 이 작품을 위해 이전의 모든 것을 잊고, 잊고, 잊어야만 했다.
3. 그는 지독한 염세주의자다. 그는 새끼여우와 앨런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거부했다. 나는 낙관론자다. 나는 새끼여우와 앨런을 구하고 싶다. 나는 “희망”이란 단어를 사랑한다. 그러나…
4. 게오르그 카이저 (Georg Kaiser : 1878-1945)  
독일의 대표적 표현주의 작가.  
스위스 망명중(1938-1945) 사망.  
대표작 : 가스 / 가스2 / 아침부터 자정까지 / 깔레의 시민들.
5. 카이저가 그의 친구 케자르 폰 아르스에게 보낸 글.  
“이제 인생에 대한 깊은 관찰, 그리고 삶과 이별, 어린이들의 입에서, 감동적으로, 그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어른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다. 분명한 파멸 속으로 보트에 탄 어린이들은 바다에서 표류한다. (...) 어린이들은 구조된다. 한 소년만이 구조를 받지 않는다. 바로 그 소년만이. 그는 저주스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하지 않는다. 그는 삶을 중요한다. (...) 그 소년이 드라마의 위대한 인물이다.
6. 1940년 9월에 폭격당한 영국의 도시들로부터 캐나다로 어린이들을 수송하던 기선이 공해상에서 어뢰에 의해 격침당하였다. 단지 몇몇 어린이들만이 구명보트에 실려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중 한 구명보트의 7일간에 걸친 표류가 다음의 내용들이다. 결국 13명의 어린 표류자를 중에서 11명만이 구조를 받았고 나머지 두명에게는 비행기가 너무 늦게 왔다.
7. 옛 인간과 새로운 인간의 대립과 새로운 인간에의 포기 그리고 염세주의.
8. “나는 한동안 모든 것을 잊어야 했고 잊어야 한다. 대양을 표류하는 어린이들의 저주를 기술하기 위해 깔레의 시민들도, 병졸 다나까도,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생애를 청산하는 궁극적인 작품을 찾기 위해…”
9. 끝으로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강 효연씨, 수범이형, 최성문 학우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 2월 24일 수요일 밤에



무대감독 송근호(기계 87)



무대장치 손진용(산공 87)



무대미술 임경화(화학 87)



조명 I 황명식(전기 88)



조명 II 김형근(국문 92)



음향 서윤희(사사 90)



분장 정현용(법 87)



홍보 권태수(경영 87)



진행 안성문(건축 88)



의상 진상범(전기 89)



소품 이충희(전기 91)

신체훈련  
강효연(숙대 무용과)

## 마임(MIME)의 이해(理解)

### 1. 마임(mime)의 정의(定義)

마임은 순수한 몸의 예술이다. 몸짓을 통한 표현은 인간 고유의 특성이며 그것은 완전히 본능적인 것이다.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몸짓으로 원시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으며, 이 몸짓은 동물처럼 무의식적인 것 이었다. 공포나 불안에서 오는 긴장, 만족감에서 오는 이완, 기타 다른 기분의 반영 등 여러가지 감정에 대한 신경과 근육의 강한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가 유치한 상태에서의 인간은 훨씬 더 육체적인 표현 수단을 사용하였고, 그 후 점차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였을 때 언어가 직접적인 의사교환의 수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깊은 열망이나 간구(懇求), 혹은 신에게 바치는 두려움이나 숭배를 춤이나 종교의식의 형태를 빌어서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것이다. 그러므로 마임이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인류 공통의 몸짓 언어로서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의 한계성을 뛰어 넘은 보다 폭넓은 사상 전달의 표현 수단인 것이다. 마임은 다른 예술 형식에 비하면 근원적으로 인간의 의식이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으로써, 움직이고 생각하는 정신과 육체를 합일시키려는 인간의 본능 속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다.

마임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침묵도 언어의 한 순간이다. 침묵은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일 뿐 여전히 하나의 언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침묵의 예술인 마임은 인간의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함축 한다고 하겠다.

### 2. 마임의 역사

마임은 지구위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

되어 온 것이 틀림없다. 미개인들이 캠프파이어(Camp fire)를 둘러싸고 춤을 춘다든지,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이나 석기시대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의 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임은 인류가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어느 곳이나 마임은 존재한 것이기에 시공을 초월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시시대부터 마임은 전쟁무용, 동물의 홍내, 종교적 의식 등과 연관되어 표현되었고, 이런 것은 가장 고대문명에 속하는 인도, 에집트 문명에서 이미 예술적 형태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고대 희랍로마의 마임은 광대 줄타기, 우스꽝스러운 희극, 장례식에 사자의 홍내를 내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마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전체와 관계되어 있고 수많은 인물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 마임의 역사를 정확히 검토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로마(Rome)**—유럽 지역의 판토마임은 로마에서 가장 발달 되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중에 과고들이 갔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는 그 극속의 배역을 판토마임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그 극자체를 판토마임이라고도 하였다. 줄리어스의 시저는 전설에 의하면 마임 극단을 데리고 다녔으며, 아우구스투스는 열광적인 관찰자였고, 네로 황제는 연기자였다.

리비우스 안드로니커스는 배우자가 작가였다. 성 아우구스투스는 “판토마임은 도덕적으로 썬커스보다 더 위험하다. 그것은 죄악적인

정감을 표현하며, 여성들의 미적, 성적 흥분을 불러 일으켜 추잡한 유혹을 일으킨다”라고 비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나) 희랍(Greece)**—희랍에서는 판토마임에 때로는 합창단을 동반시켰다. 고대 희랍에서 마임은 신들과 영웅들을 취급한 신성한 민화에 한정하기로 법칙화 되었다. 그 후에 마임은 여러 가지 감정이나 태도들을 무언극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완전히 극적이고 인기 위주의 마임과 언어, 춤의 혼합물인 실질적인 것이 되었다. 희곡에 있어서는 더욱 자유스러웠다. 당시의 아리스토파네스의 <새>는 언어없이 배우의 풍부한 표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마임이었다.

**다) 영국(England)**—영국에서는 판토마임이 벙어리 구경거리(dumb show)라는 말로 불리워지나 판토마임이란 말도 계속해 사용해 왔다. 그 시작은 이태리식의 희곡으로 발전하여 영국의 연극, 무용 특히 발레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나 특히 크리스마스 계절에 마임이 많이 유행되었다.

**라) 프랑스(French)**—프랑스의 마임은 1708년이 중요한 발전 시기였다. 그것은 18세기에 발레의 대상들이 유행시켰던 서술적이고 표현적인 마임을 규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위대한 발레리나는 동시에 훌륭한 마임가들이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마임은 인간의 원시적 마임과 무용극으로부터 복잡한 극적 형태로 전개 되었고, 두 가지의 조류를 형성했다. 현재는 희랍로마로 부터 <Commedia dell' Arte>를 통하여 온 판토마임이 전통이다. 이것은 고전 발레의 연극 오페라에서 제스츄어 언어

와 무언연기로 가지를 쳐 나갔으며, 이밖에도 여러 형태의 제스츄어와 유럽 판토마임학교의 연기, 뮤지컬과, 썬커스, 무성영화의 희비극이다. 둘째는 유럽 밖에서의 민속적인 무용극으로서 일본, 중국, 인도로 부터 흑인, 미국, 인디언, 중동, 오스트렐리아 전통에서 발달, 보급된 것 까지에 이른다.

### 3. 마임과 판토마임(Pantomime)

우리는 흔히 마임과 판토마임을 동일어로 사용한다. 물론 몸동작과 제스츄어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사상과 감정의 무언의 의사전달이 판토마임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마임과 판토마임을 흔히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어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판토마임은 이야기를 말하기 위하여 정확히 묘사된 대상, 행동, 상황 그리고 사건에 깊이 의존한다.

반면에 마임은 이야기를 말할지 모르나 경험과 무대의 규약을 정확히 하고 주제가 더욱 암시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표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임은 모호한 반면에 판토마임은 명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임이 좀 더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말은 마임의 본질이 해결의 다양성에 있고, 표현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의문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마임하는 사람의 해석을 관람자도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그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상징성의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

그러나 오늘날의 마임과 판토마임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양자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희회소연극 "침체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대미국 노래의 힘"			
1923년 7.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엔젤페넌 회 주관			
1925년 7.28, 29	"소인연극" 고교생추천회 주관			
1	1969년 11.	"폐광으로 돌아온다" 황영식 작	이반	전진호
2	1969년 10.28	"Our Town" By Thom Wilder		이대주
3	1969년 10.10	"외자들" 이오네스코 작		이대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15	"황제의 생활"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28, 29	"승부의 鋒火" 사무엘 베카트 작		김양기
7	1971년 5.25,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날밤 살화" 윤조병 작 "당해의복에 빠져서" 안토 쇼풀 작 "황금단지"(로마극) 푸라우터스 작 "고드를 기다려" 사무엘 베카트 작	정종화 주경서 한영재 윤근래 차현재	
8	1971년 11.4, 5, 11	"서적행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 작		차현재
9	1972년 5.25, 26, 27	"생일파티" H.센터 작		한영재
10	1973년 5.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위렌마트 작		고보인
11	1973년 10.25, 26, 27	"왕" H.센터 작 "기도"(소극장) F.아리발 작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25, 28, 30	"정의의 사람들"(전 5막) A.까뮈 작		정종화
13	1975년 6.9, 10, 12, 13	"세용리의 산책" "도스포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은
14	1975년 10.29, 30, 31	"비디안과 방화범" Max, Frisch 작	김기열	안홍순
15	1976년 6.1, 2, 3	"인터넷" 장 르로드 반 이탈리 작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 26, 27, 28	"행" 장 르로드 반 이탈리 작		김영태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쇄퍼 작	백경식	김영덕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쇄퍼 작	방 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장 by Osk Hartman (f)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34	"EQUUS"(대학연극 연극제 참가) 피터 쇄퍼 작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 19	"현장 2897" 김영덕 작	정재호	이영국

##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물" W. Armg (f)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로식과 어인" 이강백 작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 작	전경호	안홍순
4	1978년 3.29, 30	"생" 이강백 작	한철	정재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 Sl. V. Milly (f)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24, 25	"임금님 키는 달나귀 키" 김용학 작	최시영	이용심
7	1984년 4.16	"불쾌코메디" 피터 쇄퍼 작	전희식	홍여석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 Holland 작	차세훈	김진호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22	1979년 9.29, 10.2	"초분" 오태석 작	이정일	황정운
23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작	엄세범	백경근
24	1981년 11.12, 13, 14	"노부인의 방문" F.위렌마트 작	이종규	황정운
25	1981년 11.12, 13, 14	"달빛이 美" 강병중 작	전희식	황정운
26	1982년 5.12, 13	"바리골라" A.까뮈 작	홍태용	지숙
27	1982년 10.7, 8	"섀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 작	전희식	황정운
28	1983년 6.20, 21	"미시시피 바의 결혼" F.위렌마트 작	전희식	김영덕
29	1983년 10.7, 8	"트리버" John Bowen 작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Miller 작	이종규	오세환
31	1984년 10.11, 12, 13	"엔진소" John Schaarberg 작	차세훈	이용심
32	1985년 5.5, 9, 10, 11	"인민들" Maxim Gorky (f)	김상현	이용심
33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파레스키	하승민	송기령
34	1986년 6.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 쇄퍼 작	허성우	하승민
35	1986년 9.11, 12, 13	"크루소" F.이오네스코 작	안광준	우기별
36	1987년 6.3, 4, 5	"한 여름 밤의 꿈" W. Shakespeare	전형진	오정열
37	1987년 9.10, 12, 13	"오해" A. Camus (f)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2, 3, 4	"세번은 끊게 세번은 걸게" 이어령 작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6, 7, 8	"안내놔? 못내놔?" Dara Fo 작	전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 26, 27	"농녀" 윤조병 작	천승민	안선후
41	1989년 10.10, 11, 12, 13	"대상당의 살인" T.S.Elk (f)	오정열	이반
42	1990년 5.24, 25, 26	"안나고네" 장 아누이 작	전태수	이준식
43	1990년 8.30~9.1	"한복 연대기" 홍석영 작	천승민	이영민
44	1991년 5.30, 31, 6.1	"생일파티" H.센터 작	남재우	전승혁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 (f)	양현준	전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들을 불렀다" 김상현 작	임경화	정현용
47	1992년 9.17, 18, 19	"금강의 예수" 김재관 (f)	홍서관	송근호

## 경양식 & 호프전문점

빼에로

TEL. 812-5768

● 중실대

고풍스러운 분위기 학사주점

옛촌

TEL. 813-6235

지하  
충실대 정문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CHINESE RESTAURANT)

연래춘

TEL. 812-9108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습니다.  
충실파크 앞  
2F

● 중실대

승실인의 느낌을 확인시키는 호프

Restaurant  
미네르바  
816-3967

C · A · F · E  
여 · 우 · 사 · 이  
상도점  
8 · 1 · 5 · 8 · 6 · 9 · 4  
여 · 기 · 서 · 우 · 리 · 의 · 사 · 랑 · 을 · 이 · 야 · 기 · 하 · 자

최신곡 긴급입수

메니아 노래연습실

유명작곡가와 함께

당신도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실대  
후문 ● 중실대  
정문  
TEL. 821-0975

두메글

승실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연회석완비 · 한식전문

TEL. 813-3655

충실대

백마당구장

최신의 시설로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 중실대  
정문

TEL/765-7702, 764-9418 FAX/765-7702

잔우물 고장을 찾아나가는

땅의 사람들

일구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

- 각종 홍보물 제작 (포스터, 팜플렛, 회지 등)
- 경기 간행물, 단행본의 편집에서 제본까지
- 기타 인쇄물의 편집대행 · 제작

## *Trad Club Philosophy*

막 사입어도 일년된 듯한 옷  
십년을 입어도 일년된 듯한 옷



**사** 랍은 첫인상이 옷차림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사고방식 및 취향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자기표현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어떻게 갖추  
어 입어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개  
성을 돋보이게 하는 보기 좋은 옷차림  
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트레이드클럽에서는 누구보다도 옷차림에 꼭 까다로운 비즈니스맨들의 의생활을 위하여 여기에 옷차림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소개합니다.

스타일과 유해물 혼동하지 마십시오.

유행은 바람입니다. 항상 방향이 바뀌고, 지났는가 하면 다시 돌아오는 바람입니다. 유행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 옷을 잘 입는 길입니다. 스타일은 개성이고, 인격이요, 교양입니다.

사람보다 웃이 돌보여서는 안됩니다.

값비싼 옷감으로 된 화려한 옷이 좋은 옷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사람 아닌 옷이 걸어가는 느낌을 주게됩니다. 사람과 그 인품, 그리고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이 훌륭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유형에 관계없이 어느 시대에나 즐겨 입히는 트레이디셔널 스타일과 같이, 보편성과 영속성을 지닌 것이 훌륭한 스타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유행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으며, 어느 나라에서나 정통 스타일로 통합니다.

저작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둘 짐잖은 옷차림만을 하는 사람은 개성이 없고 딱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점잖게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개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스티일의 요점은 개성과 취향의 센스있는 표현입니다.

너무 개성이 강하면 안됩니다.

색감과 디자인이 강렬한 옷차림과 개성적인 옷차림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개성을 살리되, 상식과 자유스러움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와벽하면 비아냥하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빈틈없이 완벽하게  
격식을 갖춘 차림새는 비인간적인 느낌  
을 줍니다. 어딘가 한 구석 빈 듯한, 여유있  
는 스타일로 연출하는 세스가 필요합니다.

규칙이 잘 잡힐야 합니다

양복의 색상이 좋다고 해서, 혹은 세츠가 멋있다고 해서 좋은 옷차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하나의 옷이 전 체적으로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개성적이 되어야 합니다.

의어서 펴주세요 합니다

아무리 모양이 멋있는 옷이라도, 입어서 편안하지 않는, 착용감이 나쁜 옷차림은 결코 좋은 것이 못됩니다. 적당한 여유감으로 체형에 편안하게 맞아야 합니다.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옷차림이  
자기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차림을 말합니다. 입어서 자신이 아무런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주] 서울트래드플러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9-19 번지 트래드플러스빌딩 • 우편번호 135-100 • 전화 : (02) 542-8888 • FAX : 546-0059